제902호 1989년 3월 4일 창간 2006년 8월 13일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헌 편집 : 양재웅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벧전 3:21)

2006년 제4차 학습 · 세례 교육 실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시고 제정하신 성례입니다(마 28:19). 무엇보다도 세례는 단순히 의례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엡 4:5),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갈 3:27),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되는 권세(요 1:12)를 얻을 수 있는 은총의 표(롬 4:11)가 됩니다. 결국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은총을 받습니다(갈 4:7). 그래서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은 6개월 간의 양육 과정을 수료한 뒤 최종적으로 학습 및 세례를 받습니다.

학습은 만 14세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례**는 학습을 받고 무흠하게 6개월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세례**는 본 교회 등록된 가정의 만 2세까지의 유아로 부모 중 한 분이 세례 교인일 경우에 소정의 교육을 받은 뒤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아들은 만 14세 이상이 되면 세례가 아닌 **입교**를 받으면 됩니다. 또한 **개종**은 천주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영세를 받은 성도로 본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나신 분에 한해서 교육을 받은 뒤 개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습, 세례, 입교, 개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며 십자가 길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우리 교회의 학습 · 세례식은 1년에 6차례 짝수 달 넷째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학습 · 세례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세례가 신자가 되기 위한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믿으시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교육을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고전 12:13).

*학습 · 세례 교육에 관해서는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고, 교육 일정은 본지 8면을 참조하십시오.

2006년 후반기 장학생 선발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천국일꾼을 위한 장학생 선발을 마쳤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단순히 학업 성적 내지 가정 형편이 아닌, 십자가의 은총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영적인 검증을 거친 205명의 장학생들은 앞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딤후 2:1).

*장학생 명단은 본지 4면을 참조하십시오.

생명의 복음

믿 음 (히 11:1)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용어를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이다. 그렇다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율법 · 도덕 · 윤리 · 철학 · 물질 · 명예 등 세상적인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죄로 물든 인간은 어느 누구도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히 11:6). 그러므로 만일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약화시키거나 무시한다면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믿음의 토대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을 대신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고 있는가? 태초에 말씀이셨던 예수께서는 믿음을 대신하여 율법과 행위를 내세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매우 심각한 경고를 하셨다(마 23:13,15,23,25,27,29). 그들의 종교성과 행위는 뛰어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었던 그들의 심령은 불꽃 같은 성자 하나님의 눈에는 '회칠한 무덤'으로 판단될 뿐이었다. 그러나 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며 초라하게 살아가던 바디매오의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아주 단순한 한 마디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믿음의 외침'이었으며(막 10:49),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 되었다(막 10:49 ; 엡 2:8 ; 롬 5:1).

믿음에 대해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다. 믿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이지, 결코 외적인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믿음'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적용하였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양을 선택하였으며,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단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할 뿐이다(히 11:4). 예수께서도 제사, 즉 예배에 대하여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이다(요 4:23). 즉, 주님도 단지 '신령과 진정'이라는 조건만을 붙이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곧,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믿음'을 '노아의 삶'에 적용시키기도 하였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것이다(히 11:7).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를 짓기 위해서 일 백 년이라는 세월을 소모하였다. 그가 행하는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비웃지 않겠는가? 더구나 바닷가가 아닌 육지에 배를 짓는 일은 얼마나 비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일인가?(창 7:17) 게다가 그 비웃음과 조롱은 하루, 이틀, 또는 한 달, 일 년이 아닌 일 백 년 동안 계속된 조롱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도끼질'을 하였고, '믿음의 대패질'을 하였으며, 믿음으로 역청을 칠하고 망치질을 하였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히 11:7).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참된 삶'과 자신의 만족을 위한 '허탄한 삶'을 구분하는 진정한 신앙의 기준이 되는 셈이다.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인가? 노아처럼 믿음에 의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란 지금은 잘 분별할 수 없는 일이지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엄격하게 구별 짓는 분명한 기준이 될 것이다.

(김성관 위임목사)

Sermon for Next Sunday

HARVEST TIME

(34) Jesus said to them, "My food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accomplish His work. ... (37) "For in this case the saying is true, 'One sows, and another reaps.' (38) "I sent you to reap that for which you have not labored; others have labored and you have entered into their labor." (John 4:34~38)

The fourth chapter of the Gospel of John is full of surprises, especially concerning the story of the Samaritan woman. This woman was a Gentile, but Jesus, Israel's Messiah, met with her at a well in a city of Samaria called Sychar. Even she was surprised that a Jewish man would ask her to draw water because the Jews had no dealings with Samaritans (v. 9). After her encounter with Jesus, this once angry and bitter woman now ran to the city people screaming and yelling with joy and good news. They were surprised at her change. "From that city many of the Samaritans believed in Him because of the word of the woman who testified"(v. 39). Jesus' disciples were also surprised that He was not hungry after their long walk to Sychar, "Meanwhile the disciples were urging Him, saying, 'Rabbi, eat.' But He said to them, 'I have food to eat that you do not know about.' So the disciples were saying to one another, 'No one brought Him anything to eat, did he?' Jesus said to them, 'My food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accomplish His work'"(vv. 31-34). Jesus stayed with the Samaritan people for two days, and many more believed because of His word. They told the woman at the well, "It is no longer because of what you said that we believe, for we have heard for ourselves and know that this One is indeed the Savior of the world"(v. 42). To their surprise, Jesus was their Savior.

Can you imagine today, someone from Jerusalem going into Palestine and the whole city changing? It would certainly be surprising! The Samaritan woman was a lowly and sinful person, but Jesus used her in His ministry and the city became saved by Him. The Jews thought the Messiah was the Savior of their own nation, but the Samaritans confessed Jesus as the Savior of the world. This impossible place with its hopeless people had an 'out of box' situation happen that saved them. It was harvest time and Jesus reaped in the harvest.

Right now, there are people in this world ready for harvesting. Jesus told his disciples, "Do you not say, 'There are yet four months, and then comes the harvest?' Behold, I say to you, lift up your eyes and look on the fields, that they are white for harvest"(v. 35). The world is ready, people are prepared, and so there is no confusion or excuses for not realizing that right now is reaping time. God's grace is available to the world for only a short time. Paul reminded the Corinthians of this, saying, "Behold, now is the acceptable time,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2 Cor. 6:2). Look at all the people around you, your neighbors, acquaintances, co-workers; too many of them do not know Jesus Christ. Ask Jesus to open your eyes, so that you can see the harvest. The whole world is in peril, every place has problems. All kinds of troubles, like terrorism, mass killings, disasters and diseases, suicides, and hate surround us. Worldwide, human morale and courtesy is faulty. Even as a Christian, it is difficult to find real Christians. Most people who read their Bibles and practice faith are still rough. Right now, it is reaping time for so, so many people.

God rewards the people who work His fields. Jesus told the disciples, "Already he who reaps is receiving wages and is gathering fruit for life eternal; so that he who sows and he who reaps may rejoice together"(v. 36). Right now, we receive wages and find joy in our labors, but later on, we will receive the greatest wages and experience full joy. In Revelation 22:12, Jesus promises, "Behold, I am coming quickly, and My reward is with Me, to render to every ma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The Lord is going to calculate our time and effort. He is personally going to ask you for an accounting of His business. What are you going to say to Him? Many will proclaim that they went to church and prayed, but how many will confess that they fought for eternal values and not just their own? Jesus will say to those who looked after their own interests, "Depart from Me, accursed ones, into the eternal fire which has been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s"(Mt. 25:41). In other words, Jesus is going to tell them to get out of here, "for I was hungry, and you gave Me nothing to eat; I was thirsty, and you gave Me nothing to drink; I was a stranger, and you did not invite Me in; naked, and you did not clothe Me; sick, and in prison, and you did not visit Me"(Mt. 25:42&43). Those who took care of their own things will cry out, "Lord, I went to church and talked to you all the time," but Jesus wants to see what you reaped of His harvest. Have you talked to unbelievers about Jesus Christ? He is coming quickly, and He is coming with great rewards to give to those who worked for eternal values. He is really, really going to have a one-on-one conversation with you, at which time there will be no excuses or room for pride. I hope you hear Jesus say, "Well done My good and faithful slave, because you were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now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enter into the joy of My kingdom."

The harvest is here, but the workers are few. Jesus told his disciples, "For in this case the saying is true, 'One sows and another reaps.' I sent you to reap that for which you have not labored; others have labored and you have entered into their labor"(vv. 37&38). Having a rich and full harvest is wonderful, but how terrible is it if there is no one to work the fields, and the harvest decays and rots? Jesus' second coming is soon, but there is only a small workforce. Very few people are going after real souls. Many people say they are Christians, but not many of them are doing missionary work. Jesus told His disciples,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laborers are few; therefore beseech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laborers into His harvest"(Lk. 10:2). We need good laborers. We need to pray to become good reapers. Do you think reaping souls is an important responsibility, or is taking care of your body, business, and personal matters more important? As a believer, who wants to go to heaven and experience eternal life, do not you think it is a sin to ignore the harvest? What is wrong with your thinking?

My dear friend, when Jesus looks at you, is He seeing something good? Please drop your pride and dedication to your own things. Everything material is going to be set afire and destroyed. Only the soul is important. Jesus is going to say to those who seriously got involved during harvest time, "Come, you who are blessed of My Father, inherit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Mt. 25:34). Like Jesus, is your food to do God's will and accomplish His work? I have to be honest; I do not think most of you really care about harvest time. Your food is the world! After hearing this sermon, most of you are going to walk away and immediately start concentrating on your own things. I want you to hear this, Jesus is real and He is really coming back! He is really going to calculate your harvest time, and I am telling you that it is now harvest time. Are you ready? Please repent and go to work. Do not look for an easy harvesting job because they are all hard. Where is your treasure? Think about non-believers and proclaim Jesus. Focus on Jesus inside your house and outside your house. Start eating the right food, so you can start harvesting the right fields. Amen.

다음 주일 설교

추수의 때

김성관 목사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 (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38)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4:34~38)

예수를 믿는지라

요한복음 4장은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 동네의 한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여인 자신조차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는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9절). 예수님을 만난 후, 비탄과 분노에 잠겨 있었던 이 여인은 기쁨에 넘쳐 소리치며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39절).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수가성까지 먼 길을 걸어왔는데도 주님께서 시장해 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31-34절).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과 이틀을 함께 지내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우물가의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니라"(42절).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추수의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지나갔고, 그로 인해 그 동네 전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천하고 죄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의 사역에 이 여인을 사용하셨고 그가 살던 동네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야를 자신의 민족만을 위한 구세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소망 없는 사람들과의 이례적인 만남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추수 때에 예수님은 추수할 곡식을 거두신 것입니다.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추수할 때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35절). 세상은 때가 이르렀고 사람들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추수할 때임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단지 짧은 기간에 한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이웃 사람들이나 알고 지내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추수 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계는 위험에 처해 있고 사방에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테러리즘, 대량 학살, 재난과 질병, 자살, 증오 등 온갖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인간의 윤리와 예의 범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믿음을 실천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삯도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삯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삯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36절). 현재에도 우리는 우리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고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앞으로는 더 큰 삯을 받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12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계산할 것입니다. 주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긴 일에 대해 결산을 청구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께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몇 사람이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싸웠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사욕을 좇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마 25:41).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기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마 25:42,43). 자신의 일에만 매달렸던 사람들은 울부짖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예배에 참석했고 항상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추수 때에 여러분이 거둬들인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영원한 것을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줄 큰 상급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과 일 대 일로 면담하실 것입니다. 그 때에는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찌어다"라는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때가 되었으나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예하였느니라"(37,38절). 넘치도록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밭에 나가 일할 일꾼이 없어서 추수할 곡식들이 모두 썩고 만다면 이 얼마나 난감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옵니다. 그러나 일꾼이 너무 적습니다. 아주 극소수만이 진정으로 영혼을 찾아 나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눅 10:2). 주님께는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충성스런 추수꾼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몸이나 사업, 개인적인 일들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신자로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추수를 태만히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일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선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발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물질적인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추수의 때에 열심을 다 해 일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 25:34).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러분이 추수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세상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대부분은 곧장 나가서 자신의 일에 골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실로 복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여러분이 추수한 것을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회개하고 일하러 가십시오. 추수 일 가운데서 쉬운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일들은 모두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보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집 안에서건 밖에서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참된 양식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한 밭을 찾아 추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 속의 여인들

수로보니게 여인 (마가복음 7:24-30)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가족들을 돌보면서 많은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이런 난관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신앙적 요소도 공유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유대 민족으로부터 천대받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장애 요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더러운 영에 의해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구해 주시길 간청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마 15:22). 그녀는 예수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정직하고 겸손했습니다. 깨끗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간청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녀를 제지했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조차도 그녀의 문제를 지나치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셨습니다(마 15:23). 예수님께서 그녀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여자의 간청은 너무나 간절해서 제자들조차 곤혹스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 난처한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어 예수님을 졸랐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구까지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역 범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단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이 이방인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냉정한 말씀 앞에서 그녀는 심하게 상한 자존심으로 인해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막 7:28).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개와 같은 처지임을 실로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개와 같이 비천한 위치에 서서 간구합니다. 제발 부스러기라도 얻게 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간구에는 주님을 향한 경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나 자존심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광대하심을 알기에 자기의 딸을 위한 아주 작은 자비라도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자존심 싸움 따위에 의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이방 여인, 곧 딸의 어머니는 주님으로부터 은총의 약속을 받습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마 15:28).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어떤 여인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어떤 위대한 신앙인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영향력보다 뛰어납니다. 이제 그녀의 가정은 사탄의 훼방과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자유, 부드러운 고요와 고귀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막 7:30).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 가서 결국 해결받았습니다.

세상은 어머니들의 위대한 기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믿음, 심지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에도 학원이나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부탁드리기는 사탄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을 공격할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우리 가정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위한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들의 깨끗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을 쏟는 기도, 정직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사실을 만홀히 여기고 외면하거나 부인하는 자들은 자신을 사탄에게 방치하여 죽음과 멸망을 초래하게 할 뿐입니다. 자녀를 위하는 어머니들의 본능적인 방어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이 사탄의 날카로운 공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이것만이 진정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의 보살핌이 예수님의 보살핌보다 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터전인 이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으로 양육하는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2006년 후반기 장학생 명단

대학원생 (21명)

강미경	강영기	계서연	김경성	김광미	김지희	김진희
문성옥	박애선	양현구	윤석원	윤지원	이나훔	이병진
이성훈	이유미	전보은	정명근	정혜리	조인선	최윤경

대학생 (113명)

강한나	곽현우	권덕용	권마리솔	기하경	김동석	김명희
김선아	김성은	김소연	김아름	김연희	김영재	김영훈
김요한	김용원	김윤경	김정윤	김지선	김지희	김충현
김현우	나지희	노지은	동유창	박건진	박경은	박미연
박보람	박상준	박예정	박은지	박효선	배찬희	백민지
백지연	서동혁	손석호	손향아	신성철	심왕섭	심재원
안윤정	염혜실	예상욱	오찬양	오태석	왕현정	우경은
유미나	유승희	윤지현	윤지희	이다정	이동훈	이미숙
이민정	이민형	이보람	이봉호	이상희	이송미	이송이
이슬기	이우미	이우주	이재욱	이정현	이주영	이주희
이지연	이태현	이한봄	이현주	이혜원	이호준	이화영
장성재	장진호	전선영	전일영	전지향	전혜영	전혜정
정다희	조상미	조영백	조한규	조현국	지은미	지은진
차병철	천진경	최 웅	최선정	최예솔	최유리	최재성
최현희	추승민	하상원	한태범	현슬기	홍경화	홍기숙
홍성은	황세연	황순란	황윤하	황인호	황정현	황지현
황지훈						

고등학생 (71명)

강 건	강부희	강윤정	김나영	김다령	김다혜	김대혁
김도홍	김민수	김민정	김사무엘	김성진	김성해	김에스더
김예실	김용은	김유림	김윤영	김재훈	김주원	김준환
김지수	김지웅	김지윤	김지현	김지혜	김효율	남미지
맹한호	문가람	문상효	문지훈	박다솜	박세영	박소현
박요한	박장혁	박정용	박종명	변재승	변해연	송성배
송태환	신호성	양준섭	엄예은	오다현	윤수정	이나현
이다영	이성진	이은혜A	이은혜B	이주원	이찬미	이창현
이초환	임진아	장윤호	전숙현	전하라	정문원	정민형
정예하	조수현	최민영	최진영	최한림	한사라	한이락
한정훈						

이상 205명

충현장학생 선발자 영성훈련 실시(대학원생 · 대학생 선발자에 한함)

일시 : 2006년 8월 18일(금) 금요집회 후 장소 : 베다니홀

폭포 같은 눈물을 쏟으며 전한 십자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선교지에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기에 그 위에서 우리 팀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팀원은 한 덩어리가 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손은 등을 부여잡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때면 폭포 같은 눈물을 쏟으며 울었습니다.

한 요양소에서 만난 영혼들의 희미하게 꺼져 가는 눈동자를 지금 이 순간에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시급하고 소중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들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생명들을 향해 오늘도 우리를 통해 부르시고 가라 명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검고 앙상한 손을 붙잡고서 해 줄 말이 많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들의 가슴에 뿌려지기를 외치고 외쳤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며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을 뒤로 하고 두 부부가 있는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우상을 침대 가까이에 놓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 그들에게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뿌리며 복음을 전하면서 제 자신의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였고, 선교지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총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복음으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 되어서 십자가의 깃발이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옥기(권사, 13교구)

주님께 감사!

이번 단기 선교 중에 저는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에 왔고, 말을 잘 알고 있고, 문화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에 제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아무리 저의 생각으로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아주 은혜롭게 진행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호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구로서 사역한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팀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주님의 살아 계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배지마(외선부)

성령을 통한 믿음의 사역

9교구 6지역 팀

◇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전하고 싶은데 전도 문장과 워크북에 있는 내용 외에는 더 말해 줄 수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눈과 귀, 마음을 열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영숙 집사)*

◇ 그곳의 사람들은 너무 순박하였다. 우리들이 전한 전도지를 읽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도 경청해 주었다. 진심으로 감사했다. 낯선 이방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었던 그들의 심령에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했다. *(김춘란 집사)*

◇ 아름다운 초원과 양떼들, 푸른 하늘 위 하얀 뭉실구름 아래에서 메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하늘의 복된 소식을 어눌한 언어로 전하였다. 땀을 흘려가며 기도 문장까지 따라하는 그들의 순수한 영혼이 성령의 단비로 적셔지기를 기도했다. *(이정임 권사)*

◇ 축호 전도 시에 때로는 거부도 당했지만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그들의 영혼이 주님을 영접함에 다시 한 번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미재 권사)*

◇ 한국에서 6년 동안 살다 온 여관 주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저희가 사역하는 동안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 여관 주인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아무도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제 주님께서 그녀를 그곳의 루디아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재임 집사)*

◇ 순박한 현지 사람들과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던 일, 자기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며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아주머니, 궂은일 마다않고 서로를 위하는 팀원들의 사랑까지 성령께서 먼저 계획하시어 철저히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다시 알게 해 주셨던 사역이었다. *(최선명 집사)*

◇ 가면 길 건너 편에 목동이 있었으나 우리는 목동이 어려 글을 읽지 못할 것 같아 지나치려 하였다. 그러나 멀리서 어른인 듯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어린 아이였다. 주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 잠시 나의 눈을 가리셨음을 알게 하셨다. 그 아이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자 금방 주님을 영접하였다. 그 아이를 부둥켜안고 영접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이 한 영혼을 위해 나를 보내심에 깊은 은혜의 눈물이 흘렀다. *(성유경 집사)*

◇ 팀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양 각색의 성품과 은사들, 그리고 각자의 모난 부분들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였다. 그 동안 신앙 생활에 있어서 죄악된 모습들과 연약한 부분들은 다 내어 놓고 회개하였을 때 우리 팀은 성령님의 인도로 은혜가 넘쳤다. *(오재일 안수집사, 팀장)*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8월 7일(월) ~ 8월 15일(수)	1교구 6지역	김대웅
8월 10일(목) ~ 8월 18일(금)	대학부 36팀	이신동
8월 10일(목) ~ 8월 19일(토)	5교구 4지역	박종운
8월 11일(금) ~ 8월 19일(토)	12교구 2지역	김영묵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7월 31일(월) ~ 8월 8일(화)	사랑부 1팀	조영철
7월 31일(월) ~ 8월 8일(화)	6교구 3지역	이병두
7월 31일(월) ~ 8월 8일(화)	8교구 8지역	남용승
7월 31일(월) ~ 8월 9일(수)	7교구 5지역	윤병식
7월 31일(월) ~ 8월 9일(수)	13교구 4지역	임채봉
7월 31일(월) ~ 8월 9일(수)	13교구 6지역	강진택
8월 1일(화) ~ 8월 8일(화)	3교구 3지역	최종순
8월 1일(화) ~ 8월 8일(화)	11교구 4지역	정원근
8월 1일(화) ~ 8월 8일(화)	14교구 6지역	박종율
8월 1일(화) ~ 8월10일(목)	5교구 1지역	김윤환
8월 2일(수) ~ 8월 9일(수)	에바다부 2팀	변창대
8월 2일(수) ~ 8월10일(목)	2교구 4지역	유병수
8월 3일(목) ~ 8월12일(토)	7교구 3지역	박용기
5월 9일(화) ~ 8월10일(목)	평신도 단기 선교사	장순옥

십자가의 복음으로 풍성한 여름 수련회

십자가 복음으로 깨달은 예수님의 참 사랑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무거운 짐들을 내려 놓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분명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의 과거는 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지 못했던 과거, 그 과거가 낳은 상처와 아픈 기억들, 나의 죄악들, 교만과 이기심이었습니다. 과거는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나에게도 자꾸만 쓴 뿌리가 되어 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내 안의 무거운 짐들을 완전히 내려 놓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나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죄를 모두 씻어 주신 그리스도 앞에 서 있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과 잣대로 나는 나 자신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깊이 뿌리박힌 나의 자아를 통해 현재에 맺어지는 죄의 열매를 따 먹으며, 미래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전전 긍긍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이 땅의 것들에 머물러 있던 나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딛고 서서 하늘을 향하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맺고 있던 관계들을 끊어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관계 맺는 삶을 소망합니다. 과거를 밟고 일어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치열한 자기 부인의 영적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동일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땅의 것들을 좇으며 그것들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일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기억치 않으시고 친히 내 현재와 미래의 삶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며 그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갈 2:20).

이혜란(대학부)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

수련회가 열리기 열흘 전부터 더욱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다. 늘 기도는 하지만 특정한 것을 두고 강력하게 기도할 땐 마음이 더욱 뜨거워짐을 느낀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 작정 기도를 하면서 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였다. 작정 기도가 중간쯤 진행되었을까? 난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걸 알았다. 연약한 내가 주님께서 주실 큰 은혜를 담아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릇을 마련해 주시려고 무릎을 꿇게 하신 뜻을 깨달은 것이다. 사모하는 만큼 더 많이 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크게 찬양하게 되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입술을 벌려 예수님을 외치는 것도 완전하게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어느덧 여름 수련회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러 2박 3일간의 일정을 통해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두근거렸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하는 예수님의 참 사랑!" 내가 먼저 믿고 깨닫지 못하면 베풀 수 없고, 전할 수 없는 참 사랑!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무궁하고 독점적인 사랑이 나에게도 향함에 크게 울었다. 주님 앞에 서 큰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라는 말씀이 나의 마음을 강하게 파고들었다. '이 죄인이 무엇이관대 목숨을 다 바쳐 죽기까지 사랑하신 걸까? 심지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크게 안타까워하시는 걸까?'

가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던 내 모습도 주님 앞에 내려 놓으며 회개하였다. 완악하고 추악하고 고집스러운 교만을 회개하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부인을 못 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 드렸다. 그러자 주님은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 이것이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주님의 사랑이 가져다 준 이 맘속의 큰 변화는 나의 영혼의 고동소리가 되어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자들과, 주님을 잃은 자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나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의 2박 3일은 그렇게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의 두 손엔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 예수님의 참 사랑을 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은혜(고등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폭우가 쏟아지는 아침, 수련회에 온전히 참석하고 싶은 마음에 피곤해 하는 남편을 설득하여 함께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휴일만을 기다리던 내게 주님이 주신 '사모하는 마음'은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갈급한 심령을 주셨다. 주님은 그런 내 마음을 아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주셨다.

주신 말씀을 통해 많이 회개하고 다시금 내 신앙을 점검하고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진정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남겨 두신 이유는 생각지도 않은 채 나는 하루하루 아둥바둥 살아왔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열심히 살려 했던 나의 습관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에 한 발씩 딛고 서 있는 나. 내 자신의 가식을 내려놓고 기도한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보다는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구하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나를 돌아보게 하셨다. 예수님을 좇는 삶이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내가 마음에 내키는 것만 주님께 드렸다. 모양만 흉내 내고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더 컸던 내 모습에 너무 부끄러웠다.

2006년 여름 수련회는 회개의 은총,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날이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도, 깨닫게 하심도, 내 마음이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심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얻은 은혜였다. 십자가를 향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김진영(청년 2부)

교회 탐방 영아부 부모들

아기와 함께 누리는 십자가의 은총

출산과 육아는 부모들에게 큰 기쁨인 동시에 많은 헌신과 인내를 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아로 인한 피곤함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찬양의 기쁨이 더 크다고 고백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아기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은혜 중에 있는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영아부 예배는?

저와 아내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가족이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동경했고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영아부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3살 된 큰 아이는 아내와 유아부에 다니고, 제가 둘째 아이인 재연이를 맡아 영아부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성도)*

아기는 엄마, 아빠의 신앙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요. 아직 걷지도 잘 못하는 서연이가 저희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아부 예배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언 성도)*

이제 지인이가 백일이 되었어요. 지인이를 낳고 한 달이 지나서 영아부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한 달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 정말 주일 예배를 간절히 사모했지요. 지은이가 아직 어려 많이 보채고 징징대기 때문에 늘 토요일부터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영아부 예배 시간 만큼은 얌전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김성은 집사)*

아빠가 임마누엘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해서 교회에 오면 8시쯤 됩니다. 아이들을 일찍부터 챙겨서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영아부에서 자란 첫째의 모습처럼 둘째 환희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권형숙 집사)*

영아부를 섬기며?

매주 우리 아기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기대되고 설렙니다. 아직 말을 잘 알아듣지는 못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부모님들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이규숙 집사, 교사)*

영아부 예배를 통해 달라진 점은?

아기에게 예배의 모습을 배우게 하고싶어 주일 아침이면 가정예배를 드린 뒤 영아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해 더 섬기고 사랑하게 되었고요. *(천은주 성도)*

큰 아이가 영아부를 거쳐 지금은 유년부에 다니고 있고, 둘째 지은이가 영아부에 다니고 있어요. 지은이가 큰 아이의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서인지 예배도 더 잘 드려요. 또한 시댁이 안 믿는 집안이라서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큰 아이가 아빠를 전도해서 이제는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유태미 권찰)*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저희들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 때가 많지만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기도하며 주님께 아이들을 맡기게 되었어요. *(김대식 성도)*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아이들은 주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물을 잘 키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아이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언 성도)*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 아이를 매 순간 순간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성은 집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이 말씀대로 예배를 통한 은혜를 아기들에게 스며들게 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은 주님이 고회를 더욱 든든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기에 오늘도 영아부에 출석하는 부모님들의 아침은 찬송과 은혜로 가득합니다.

(편집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아, 용서하소서 *(C.Goundo 곡, 충현찬양위원회 편, 성가곡집)*

"아,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 죄인의 기도소리 들어주소서.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구주여."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예수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물론 나도 그렇게 간증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아, 용서하소서"* 찬양을 부르던 어느 순간에, 나와 똑같은 한 사람이 사후에 천국문 앞에 서서 겪는 신앙 고백의 장면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 그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음으로, 이제 하늘나라 입성을 앞두고 하늘나라에서 보낸 천사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다.

자신이 평생 동안 그렇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소망하던 예루살렘성, 황금 보석 길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과연 보게 되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서 있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유 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천국과 지옥의 갈래 길에 서 있는 자신의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무서운 심판의 그 날에 나의 영혼이 멸 때에 오 나의 구주여. 오, 나의 구주여. 구주여. 구원하소서."*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왜 이리도 길고 지루한 순간인지. '어서 주님, 우리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나타나야 할 텐데.' 무릎을 꿇고 어찌할 줄 모른 채 작은 의자에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잔뜩 엉거주춤이다. 그런데 이 조바심나는 순간에 하필이면 평생 지나온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과 함께, 오래전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으로 믿어 왔던 일들이 커다랗게 더 또렷이 보이는 것은 웬일인지. *"오, 나의 구주여. 오, 나의 구주여. 내 죄를 기억마시고 나를 용서하소서. 오, 나의 구주여. 오, 나의 구주여. 내 죄를 기억마시고 나를 용서하소서."*

마치 나쁜 쪽에서 칼을 들고 누군가가 나타날 것만 같은 불길한 순간이 자신을 엄습한다. 그 때에, 바로 그 때에,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면서 그가 바로 나와 함께 눈물 속에서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부르던 찬양, *"아, 용서하소서"*가 울려퍼졌다. *"이 낮고 천한 죄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 들으소서. 저 원수의 칼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숨겨주소서. 지키소서. 내 기도들어 주소서."* 아멘.

안연식(집사, 임마누엘 찬양대)

♡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166	서준오	19	청년1부	이성복(16)	2184	산지웨	19	외선부	
2167	오나현	19	청년1부		2185	아밀란이산	19	외선부	
2168	차재영	5	장년2부	이미주(4)	2186	리에시두민	19	외선부	
2169	김재홍	12	청년2부	김성훈(12)	2187	루퍼싱가	19	외선부	
2170	이규연	15	청년2부	이찬주(3)	2188	위르세카라	19	외선부	
2171	원호미	19	청년1부	석성애(1)	2189	빙일홍	14	소망부	이정애(14)
2172	김보영	19	청년1부		2190	인지수	19	청년1부	변성주(10)
2173	한예림	19	청년1부	김성우(4)	2191	김준수	19	중등3부	이상근(9)
2174	권영순	1	장년1부	노광희(15)	2192	석원탁	4	청년2부	김진영(17)
2175	권준석	8	청년2부	백길자(8)	2193	김원철	10	장년1부	김점순(16)
2176	김정희	8	청년2부	백길자(8)	2194	강경희	16	장년2부	
2177	알리세	19	외선부	배지마(11)	2195	문금자	14	소망부	여옥님(1)
2178	사브캇트	19	외선부	우미드(19)	2196	조정기	2	청년1부	
2179	리다	19	외선부		2197	한상규	3	장년2부	
2180	티사	19	외선부		2198	이순자	14	장년2부	강효정(16)
2181	다르사나	19	외선부		2199	조영애	5	장년1부	양기수(5)
2182	랄	19	외선부		2200	이정환	9	청년1부	김형조(17)
2183	구마라	19	외선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교회소식

별세

1. 정순안 씨(박미란 권찰의 시부, 11교구 을지구역) / 3일 별세, 5일 장례
2. 김옥임 씨(주동식 성도의 모친, 김학회 집사의 시모, 15교구 봉천 6구역) / 3일 별세, 5일 장례

결혼

1. 김복기 군(김보석 씨, 김귀순 씨의 아들, 19교구)과 이민정 양(이기숙 안수집사, 최정자 권사의 딸, 16교구) / 15일(화) 13:00 갈릴리홀
2. 오승민 군(오재일 집사, 김금순 집사의 아들, 울산시민교회, 19교구)과 조유진 양(조문수 안수집사, 최은경 집사의 딸, 12교구) / 15일(화) 15:00 갈릴리홀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교회주변 전도의 날)

일 시: 금주(16일), 수요1부 예배 후
대 상: 전 교인 (교구별 여전도회 중심)
진 행: ① 수요1부 예배
② 교구별 영성훈련
③ 교회주변 전도

◇ 2006년 여름 성경학교 일정표 ◇

부서	기간	장소
중등3부	8월 14일(월) ~ 8월 15일(화)	충현기도원

교회직원 모집

1. 모집 부문 경비직 2. 자 격 세례 교인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4. 서류제출처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 552-8200(# 403)

충현복지관 직원 모집

1. 모집부문 언어치료사 1명
2. 지원자격 세례 교인으로 언어치료사 1급 자격 소지자
3. 제출서류 이력서(사진부착) · 주민등록 등본 · 자기 소개서
4. 제출마감 2006년 8월 18일(금) 오후 5:00
5. 서류제출처 충현교회 사무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401)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

◆ 임마누엘 찬양대 · 오케스트라 대원 모집

1. 모집 부문 주일 2부 예배 봉사자
2. 자 격 20세 이상~55세 미만 세례교인 (찬양대 양성부 수료 후 봉사)
3. 봉사 시간 및 장소 주일 10:30~12:00, 할렐루야홀 연습실
4. 문 의 찬양위원회 (# 257)

2006년도 제4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8월 13일 (오늘)	1교시 15:00~15:50	성경 개요 (최종철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정충신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40	기독론 (이성진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장 훈 목사)	교육관 304호		
8월 20일 (다음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 개요 (김준회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란? (최성규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 세례란? (안치원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8월 27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찬양예배, 본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실 바람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홀) 오후 2시 30분까지 입실 바람	

8월 충현 기도의 창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2. 충현의 모든 청지기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께 드려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 2006년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4.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5.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교회학교 위에 풍성히 내려 주소서.
6. 모든 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7.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8.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 · 동산 · 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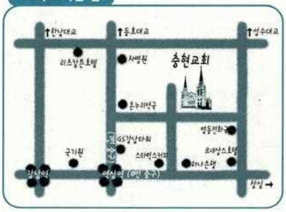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주일)
설교자/기도자	정진호/배춘식	안창덕/정재영	장 훈/김동철	임현덕/박춘근	김영훈/이부성	이정훈/이옥주	류병희/김말자

예배담당 안내 (8/16-8/20)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8/16	수요 I	예수의 소문 (막 5:25-34) 나광영 목사	김준회	전손순	큰 무리 주를 에워싼 중에 (호산나 찬양대)
8/16	수요 II	생명의 길 (신 30:11-14) 박인기 목사	이정훈	김영숙	나를 인도하소서 (실로암 찬양대)
8/18	금요집회	양재웅 목사	류병희		벧엘 여성중창단 / 3교구
8/20	주일 I	추수의 때 (요 4:34-38) 안치원 목사	최종철	최윤덕	〈예배 전 찬양〉
8/20	주일 II	추수의 때 (요 4:34-38) 여국근 목사	김익환	조종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외 / 바이올린 장연회(전임 연주자)
8/20	주일 III	추수의 때 (요 4:34-38) 정진호 목사	안창덕	정청길	큰 죄에 빠진 나를 외 / 바이올린 장연회(전임 연주자)
8/20	주일 IV	추수의 때 (요 4:34-38) 하종철 목사	이희식	김은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외 / 소프라노 김송자(아멘 찬양대 솔로이스트)
8/20	주일 V	추수의 때 (요 4:34-38) 정진호 목사	양재웅	진학래	십자가 군병 되어서 외 / 소프라노 최시원(예본 찬양대 솔로이스트)
8/20	주일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전 2:1-2) 김태석 목사	최성규	조중민	브니엘 여성중창단 / 호산나 찬양대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당
금요집회		저녁 7:30	본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기도원 집회 안내

집회	시간	차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저녁 11:00	금요집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I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선교관 1층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등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등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등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등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등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장소
청년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년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홀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4:10 (금) 저녁 7:00-저녁 9:30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홀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멘홀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시무장로

김의철 기획위원	김은호 교구위원장	노광현 당회서기	이병학 유지재단이사	이 훈 예배위원장
남선우	김종구 충현기도원감	최무길 1교구장	이창호 예배위원	차신득 새가족양육부장
김광남 재정위원장	이종석 기획위원장	임무천 16교구장	진홍용 행정위원장	전홍렬 선교위원장
이정우 전도위원	김단용 당회부서기	한송규 전도위원	김영수 동산부장	김환기 제3교육위원장
원용철 12교구장	이형수 전도위원장	안동현 예배위원	황의만 예배위원	김구형 4교구장
최윤덕 선교위원	이계인 실로암찬양대장	박덕양 10교구장	이태식 장년1부장	정태두 전도위원
박홍규 감사위원장	권명옥 봉사위원장	조종환 제1교육위원장	배춘식 13교구장	김영달 2교구장
이실호 기도원관리부장	최지윤 시설영선부장	노영한 찬양위원장	박철구 전도위원	정청길 건축위원장
신상수 14교구장	고재승 6교구장	강철형 예배위원	김영은 전도위원	이달옥 새가족등록부장
장철환 11교구장	김승곤 탁아부장	함철주 차량안내부장	윤석민 할렐루야찬양대장	정선현 17교구장
안석현 3교구장	김연근 제2교육위원장	김창국 사랑부장	김중선 8교구장	임창식 임마누엘찬양대장
김은철 재정위원	진학래 18교구장	김신국 아멘찬양대장	전계식 대학부장	김형곤 유년부장
장승규 소년부장	전은배 중등1부장	석영식 초등부장	구재완 고등부장	송두섭 재정위원
최차용 예배위원	신선길 5교구장	유상태 유아부장	박상대 중등3부장	김규석 중등2부장
신광철 장년3부장				

■ 부목사

이종대 2교구	정현민 선교위원회	박인기 에바다부	류병희 1교구	김영훈 청년1부
여국근 4교구	안창덕 5교구	나광영 17교구	정진호 11교구	고광환 13교구
위건량	김익환 14교구	장 훈 3교구	임현덕 7교구	이희식 6교구
최종철 유년부	하종철 18교구	안치원 10교구	정충신 16교구	양재웅 편집국
이성진 15교구	최성규 12교구	이재영 중등1부	이경준 대학부	이창수 고등부
김준회 8교구	윤수일 9교구	황진섭 초등부	이정훈 중등2부	김태석 중등3부
유재진 편집국	강명구 외선부	전성원	김철규	

■ 여전도사

윤인숙 10교구	한영준 소망부	김연식 11교구	홍순애 12교구	이옥주 5교구
김말자 6교구	안태순 18교구	김정연 2교구	강덕필 14교구	최문실 7교구
전은희 16교구	김정자 17교구	김정희 15교구	이복순A 13교구	류진희 대학부
한성임 청년2부	임태주 4교구	강영미 9교구	옥미자 8교구	이복순B 3교구
강호숙 1교구	전영희 고등부	이혜숙 청년1부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 선 교 사 송요한